

《(夾注)名賢十抄詩》의 刊行目的과 流傳樣相

林 道 鉉*

<目次>

I. 序論	3. 朝鮮 初期의 重刊
II. 時期別 刊行目的과 流傳樣相	4. 大衆性的 喪失
1. 《十抄詩》의 刊行	III. 結 論
2. 《夾注十抄詩》의 刊行	

I. 序論

《名賢十抄詩》¹⁾는 中晚唐과 五代시기의 중국시인 26인과 在唐新羅人 4인의 七言律詩를 각각 10수씩 모아 총 300수를 수록한 詩選集이다.²⁾ 《십초시》에는 《全唐詩》 등에 수록되지 않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시가 100수 정도 실려 있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³⁾ 중만당시기로의 選詩

* 서울大學校 博士課程 修了

1) 이하 《十抄詩》로 약칭함.

2) 수록된 작가들의 순서는 劉禹錫(772~842), 白居易(772~846), 溫庭筠(801~866), 張籍(766?~830?), 章孝標(?~?), 杜牧(803~852), 李遠(?~?), 許渾(791?~858?), 雍陶(805~?), 張祜(792?~852?), 趙嘏(815~?), 馬戴(?~?), 韋蟾(?~873?), 皮日休(?~883?), 崔致遠(857~?), 朴仁範(?~?), 杜荀鶴(846~907?), 曹唐(?~?), 方干(809~888), 李雄(?~?), 吳仁璧(?~?), 韓琮(?~?), 崔承祐(?~?), 崔匡裕(?~?), 羅鄴(?~?), 秦韜玉(?~?), 羅隱(833~909), 賈島(779~843), 李山甫(820~?), 李群玉(813~863)이며, 그 중 최치원, 박인범, 최승우, 최광유는 당나라로 유학 가서 賓貢科에 及第한 신라인들이다.

3) 이 책이 학계에 학술적 차원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호승희(1995)에서이고, 佚

偏向과 佚詩의 존재양상 등을 고려하여 편찬 시기는 대략 고려 초기인 10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⁴⁾, 고려인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후 《십초시》에 고려스님인 子山이 협주를 하여 《夾注名賢十抄詩》⁶⁾를 편찬하였다.⁷⁾ 편찬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협주와 서문의 내용을 근거로 대략 1300년 근처로 보고 있다.⁸⁾ 이후 後至元 3년(1337)에 安東府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1452년에 이를 權思復(1280?~1360?)이 進士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사해 놓은 것을 底本으로 하고 權擘의 교정을 거쳐 密陽府使인 李伯常과 李緊이 重刊하였다.⁹⁾

詩의 정확한 수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異見이 존재한다. 여러 판본과의 出入 정도와 기존 殘句의 인정여부에 따라 98수에서 106수까지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임형택, 《夾注名賢十抄詩》 해제(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4쪽.
- 5) 《협주십초시》의 서문에 “우연히 본조(고려)의 앞선 위대한 유학자가 당나라 현인들의 전집에 의거해 유명한 시를 각 10수씩 모두 300수를 가려서 이름을 《십초시》라고 한 것을 보았다(偶見本朝前輩鉅儒據唐室群賢全集, 各選名詩十首, 凡三百篇, 名題爲十抄詩)”라고만 되어 있어, 책을 편찬한 이가 고려인이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
- 6) 이하 《夾注十抄詩》로 약칭함.
- 7) 《협주십초시》의 서문에 “내 건문이 알음에도 불구하고 구절에 따라 주석을 삽입하고 3권으로 나누었다. 내가 미처 고찰하지 못한 것은 이후 박식한 군자가 틀리고 빠진 것을 보충하고 수정해주시기를 기다린다. 작약(酉年) 9월 16일, 신인종의 노승 월암산인 자산이 간략히 서문을 쓰다(不揆短聞淺見, 逐句夾注, 分爲三卷, 其所未考者, 以俟稽博君子, 見其遺闕, 補注雌黃, 時作噩玄月既望, 月岩山人神印宗老僧子山略序)”라고 하였다.
- 8) 임형택은 1333년 혹은 1321년으로 보고 있으며(임형택, 위의 글, 16쪽), 중국의 查屏球는 1291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이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며(《협주명현십초시》(상해: 상해고적출판사, 2005), 4쪽), 일본의 芳村弘道는 1200년대 말에서 1300년대 초로 보고 있다(芳村弘道, <조선본 《협주명현십초시》의 기초적 연구>(《한자한문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5), 271쪽).
- 9) 《협주십초시》 장서각본에 있는 권람의 발문에 “이 책은 곧 후지원 3년 정축년에 지금 안동부가 간행한 것을 복성군 신촌 권사복이 진사시험을 공부할 때 써놓은 것이다(是本迺後至元三年丁丑歲, 今安東府所刊而福城君愼村權先生諱思復爲進士時所寫也)”라고 되어 있다.

《(협주)십초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새로 발견된 佚詩와 佚文의 발굴과 가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적의 편찬체계에 대한 연구만 기초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서적이 당시 고려 및 조선 초기 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 시문학 나아가 전반적인 시문학에 관한 문학비평적 관점과 시문학 교육 및 향유 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필자는 중만당 시기의 칠언율시만을 수록했다는 이 서적의 독특한 선시경향에 주목하여 각 시기별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선집의 간행, 주석서의 간행, 重刊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주)십초시》에 수록된 시, 서문 및 발문¹⁰⁾ 등을 토대로 간행시기별 간행 배경과 그 목적을 분석하여 그 유전양상에 대해 고찰해보고, 《(협주)십초시》의 선시특징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조선 초중기 이후로 대중성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時期別 刊行目的과 流傳樣相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협주)십초시》의 간행과 관련해서 세 시기를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십초시》는 고려 초 10세기 후반에 편찬되었고, 《협주십초시》는 고려 중후기인 1300년 전후로 협주작업과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조선 15세기 중엽에 重刊되었다. 세 시기 모두 《(협주)십초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간행되어 널리 읽혔겠지만, 조선 초중기부터 《(협주)십초시》는 대중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간행되거나 읽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 《협주십초시》 장서각본에는 협주를 한 자산 스님의 서문이 있으며, 重刊 책 입자였던李云俊의 발문과 교감을 한 權擘의 발문이 있어 그 간행목적과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1. 《十抄詩》의 刊行

《십초시》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협주십초시》의 서문에 있는 “본조의 앞선 위대한 유학자가 당나라 현인들의 전집에 의거해 유명한 시 각각 10수씩을 가렸다(本朝前輩鉅儒據唐室群賢全集, 各選名詩十首)”는 문구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행시기와 간행목적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고려 초기인 10세기 후반을 전후해서 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간행목적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문학양상 및 《십초시》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라는 당나라와 교류가 많았으며, 상당히 많은 수의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였다.¹¹⁾ 그 중에는 외국인이 응시하는 賓貢科에 급제하여 당나라의 관직에 진출한 이도 많았으며¹²⁾, 과거공부를 하거나 관직생활을 하면서 당나라의 문인들과 직접적인 교류도 많이 하였다.¹³⁾ 그 중 특히 최치원은 중국문인들로부터 文才를 인정받았다.¹⁴⁾ 하지만 唐末과 오대의 혼란 속에서 많은 유학생들은 귀국하였으며, 이들은 고려가 개국하자 元鳳省에서 文翰官으로 우대를 받고 대외문서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거나 자신들의 문학적 성취를 계승할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도 담당하였다.¹⁵⁾ 이로 인해 이들은 신라 말과 고려 초기의 문단에

11) 官費留學生의 파견은 善德王 9년(640)에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계속 확대되어 많을 때는 한 해에 100여 명이 넘었다.

12) 신라인으로서 처음으로 빈공과에 급제한 인물은 長慶 원년(821)의 金雲卿이었으며, 당 말기까지 58인이었고, 五代의 梁과 唐 때에도 32인에 이르렀다. 이러한 빈공과 급제자들은 지방관에 임명되어 服務한 경우가 많았는데, 김운경은 淄州長史였으며, 金裝은 海州刺史를 지냈고, 최치원도 宣州 漂水縣尉를 除授받았다.

13) 唐人이 신라인에게 준 시는 53수가 남아있으며, 신라인이 唐人에게 준 시는 85수가 남아있다. 김중렬, <羅唐 文人의 交流詩 研究>(《東洋古典研究》 6권 1호, 1996), 56쪽.

14) 최치원은 <檄黃巢文>을 써서 文名을 중국에 날렸으며, 《舊唐書·藝文志》에 그의 문집에 관한 書志事項이 기록되었고, 그의 작품인 <登潤州慈和寺上房>이 중국의 지리지인 《方輿勝覽》에 실렸다.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駢體文과 만당시풍 등 중국의 최신 文學思潮를 전래하면서 당시 문인들의 文風을 유도하였다.¹⁶⁾ 또한 송대에 이르러서는 오대시기의 혼란한 시국 속에서 많은 서적이 사라진 반면에, 고려는 송나라보다 신속하게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그동안의 문화교류를 통해 상당히 많은 중국서적을 관리하여,¹⁷⁾ 송나라의 국왕이 고려에 서적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⁸⁾ 따라서 고려 초기에는 문화적·문학적 역량에 있어서 송나라에 비견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십초시》의 시인 및 시가 선정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십초시》에서는 중국의 시인 26명 이외에 당나라로 유학 간 신라인 4명을 함께 선정하였다. 또한 시인의 배열순서에 있어서도, 신라인 4명을 마지막에 배열하기보다는 15, 16, 23, 24번째 배열함으로써 중국시인들과 並列的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선정한 시의 수도 각 10수씩 동일한 수량의 시를 수록하였다. 이렇듯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라인에게 당나라 시인들과 거의 수평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허홍식, 《고려의 동아시아 시문학·백가의집》(서울: 민족사, 2009), 101쪽.

16) 金澤榮(1850~1927)은 “三國과 고려시대에는 오로지 六朝文을 배워 駢體文에 뛰어났다(三國高麗, 專學六朝文, 長於駢儷)”라고 평했는데, 고려 초기의 문장은 신라 말의 문풍이 그대로 계승되어 在唐留學生들이 만당에서 익혀 온 四六駢體文이 주류를 이루었다. 김건곤, <고려시대의 시문선집>(《정신문화연구》 20권 3호, 1997), 19쪽.

17) 《國譯增補文獻備考·藝文考》 卷242에 송나라 張端義의 《貴耳集》을 인용하여 “선화 연간(1119~1125)에 고려에 사신으로 간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희귀본이 매우 많았다. 선진 이후 진, 당, 수, 량의 책이 모두 있었는데, 작가의 수나 문집의 수가 몇 천인지를 알 수 없었다(宣和間有奉使高麗者, 其國異書甚富, 自先秦以後晉唐隨梁之書, 皆有之, 不知幾千家幾千集)”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십초시》가 편찬된 10세기 후반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8) 《高麗史節要》 卷6, 宣宗 8년(1091) 조목에 따르면, 李資義 등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송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서적에 좋은 판본이 많다는 것을 듣고 館伴에게 명하여 구하려고 하는 서적의 목록을 적어 주면서, 비록 권수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베껴 써서 부쳐 보내라고 한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십초시》에 실린 작품의 내용은 客慮, 懷古, 詠懷, 詠物과 같은 개인의 감정을 읊은 것과 이별이나 贈答과 같은 交遊의 감정을 읊은 것이 主流를 차지하고 있다.¹⁹⁾ 이러한 경향은 《십초시》에 선정된 신라인들의 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寄贈詩, 送別詩, 酬唱詩 등으로 주로 교유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객지생활 중 자신의 감회를 적은 시도 있다.²⁰⁾ 최치원의 《桂苑筆耕集》에 있는 그의 시 30수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酬答詩 8수, 詠懷詩 5수, 寄贈詩 2수, 遊覽連作詩 10수 등이며,²¹⁾ 그 이외의 신라인들이 당나라에서 유학하면서 지은 시의 내용 역시 대부분 중국인과의 교유나 이국생활에서의 감회를 적은 것이다.²²⁾ 《십초시》에서 선정한 중국시인들의 시의 주제가 신라인들의 시가 가진 전반적인 주제와 유사하다는 것은 중국시인들과 신라시인들을 나란히 놓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교유관계에 관한 시가 비교적 많은 것은 또한 당나라인과 신라인과의 교유관계를 간접적으로 강조하여 詩作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정한 시의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식의 시가를 선정하기 보다는 기교를 뽐낼 수 있는 칠언율시를 선택함으로써 여러 형식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優劣의 요소를 배제했다.²³⁾ 이렇듯 신라인의 작품과 중국인의 작품을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선정하여, 差別性を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9) 《십초시》에 수록된 시를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送別詩 40수, 寄贈詩 58수, 酬答詩 19수, 題詩 20수, 詠物詩 26수, 遊覽詩 41수, 感懷詩 47수 등이다. 이 중 遊覽詩와 感懷詩에는 懷古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

20) 최치원의 경우 和答詩 7수, 寄贈詩 1수이며, 박인범의 경우는 寄贈詩 5수, 送別詩 1수이고, 최승우의 경우는 送別詩 4수, 寄贈詩 3수, 和答詩 1수이고, 최광유의 경우는 대부분 이국생활의 감회를 쓴 것이다.

21) 최치원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신라인들의 시는 《십초시》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없다.

22) 김중렬, 위의 논문, 45쪽~55쪽.

23) 여기에는 《십초시》의 또 다른 목적인 詩作教育의 목적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였다.

또한 300수를 수록했다는 것에서 다분히 《詩經》을 연상하게 하는데, 《시경》이 중국문학의 精髓와 原流임을 고려하고, 《십초시》에 신라인의 시를 중국인들의 작품과 병렬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십초시》를 엮은 편찬자가 느낀 신라인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중국 및 고려의 문헌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초시》를 편찬할 때 편찬자가 중국인의 시선집을 참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²⁴⁾, 수록된 시의 상당량이 현존하는 당시의 시선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십초시》 편찬자가 당시 중국에서 발행된 시선집을 참고하지 않았으며, 중국문인들과 신라문인들의 全集을 토대로 고려인의 안목에 의해 독자적으로 選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칠언율시만을 선정하는 독특한 방식은 金나라의 元好問(1190~1257)의 《唐詩鼓吹》에서야 비로소 처음 보이는데, 이 역시 고려인의 독자적인 選詩趣向을 나타내는 것이며, 중국의 여타 시선집을 모방하지 않았으리라는 증거가 된다. 이로 미루어보아 고려인은 자신의 시가 감식능력과 선시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또한 당시 신라 말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고려문인의 문학적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의 일환으로 《십초시》가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 唐代에 편찬된 唐詩選集으로는 현재 10여 종이 남아있다. 初唐시기의 시로 編者未詳의 《搜玉小集》, 744년의 《國秀集》, 753년의 《河嶽英靈集》, 성당 시인의 시를 엮은 《篋中集》, 至德 연간의 시를 엮은 《中興間氣集》, 大曆 연간의 시를 위주로 한 《御覽詩》, 성당 大曆 시인의 시를 엮은 姚合의 《極玄集》, 盛中晚唐의 시를 엮은 韋莊의 《又玄集》, 오대시기에 엮은 《才調集》 등이 있다. 宋初에 엮어진 것으로는 李昉의 《文苑英華》와 王安石의 《唐百家詩選》이 있다. 《협주십초시》에서 이미 《당백가시선》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십초시》 편찬시 중국에 존재한 시선집의 하한선은 《문원영화》가 될 것이다.

25) 하지만 이러한 능력의 자부심이 《십초시》의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건곤은 고려조에 간행된 詩文選集의 질적 완성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건곤, 위의 논문, 12쪽.)

한편, 《십초시》의 편찬에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고려 光宗 9년(958)에 詩賦를 위주로 한 科擧制가 실시되면서부터²⁶⁾ 왕을 비롯한 문인들 모두 시가 창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조 내내 유지되었는데, 예를 들면 각 문신들에게 매달 시를 짓게 한 月課詩가 成宗 14년(995)에 실시되었다.²⁷⁾ 고려의 右文政策은 폐단을 낳을 정도였는데, 仁宗(1123~1146在位) 시기에 송나라 사람에 의해서까지 詞章중심의 학풍을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⁸⁾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있었어도 대체적으로 고려조 전체에 걸쳐 이러한 시가중시현상은 지속되었는데, 이는 과거시험에서 詩賦와 십운시 과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때로는 가장 중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시가창작 중심의 문학적 분위기가 팽배함에 따라 당시 문인들은 시가창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당시에도 여러 문인의 전집이나 시선집이 고려에

26) 《고려사절요》 광종 9년(958) 조목에 “여름 5월에 한림학사 쌍기에게 지공거를 명하여 시, 부, 송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다. (...) 쌍기의 건의를 채용하여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했는데 이로부터 문풍이 비로소 흥성하였다(夏五月, 命翰林學士雙冀知貢舉, 試以詩賦頌及時務策, 取進士. (...) 用冀議, 初置科擧, 自此文風始興)”라고 되어 있다. 고려조의 과거시험에서 출제된 시는 五言排律로서 12句로 된 六韻詩와 20句로 된 十韻詩가 있었다. 특히 십운시 과목은 三場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과거에서 별도의 한 場을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었으며 10자로 이루어져 百字科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27) 《고려사절요》 성종 14년(995) 조목에 “봄 2월에 교하기를, ‘문사를 업으로 삼는 선비가 겨우 과거만 통과하면 각기 공무에 끌려서 그 본업을 폐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염려하니, 나이가 50세 이하로 지체고를 지내지 않은 자는 한림원에서 제목을 내어 매달 시 3편과 부 1편씩을 지어 바치게 하고, 외지의 문관은 스스로 시 30편과 부 1편을 지어 매년 베껴서 계리에게 부쳐 올리면, 한림원에서 내용을 판정하여 아뢰라’고 하셨다(春二月, 敎曰: ‘予恐業文之士, 纔得科名, 各牽公務, 以廢素業. 其年五十以下, 未經知制誥者, 翰林院出題, 令每月進詩三篇賦一篇, 在外文官, 自爲詩三十篇賦一篇, 歲抄附計吏以進. 翰林院品題以聞’)”라고 되어 있다.

28) 인종 원년(1123)에 송나라 사신을 따라왔던 徐兢이 고려의 학풍에 대해 “詩賦論의 3가지를 출제하지만 책문을 써서 시국을 묻지 않는다. 이것은 비웃을 일이다. 대저 聲律을 숭상하고 경학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 문장을 보건대 당의 여파와 비슷하다”고 지적하였다. (허흥식(2005) 134쪽에서 재인용.)

유통되었겠지만, 모범적인 시가를 간단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선집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았을 것이며, 이러한 요구 속에서 당시 유행했던 만당시기 시가를 중심으로 作詩의 교육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칠언율시를 수록한 《십초시》가 편찬되었다.

칠언율시는 近體詩의 일종으로 唐代에 들어와 그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졌다. 칠언율시는 일곱 자의 여덟 구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고전시가 중에서 整齊性, 音樂性, 對稱性 등을 고루 갖추어 최고의 시가형식으로 사랑받아왔다.²⁹⁾ 이러한 칠언율시는 杜甫에 의해 그 格律이 확립되었고 중당과 만당을 거치면서 여러 문인들이 많이 지음에 따라 그 예술적 성취가 더욱 깊어졌다. 특히 연회나 대인활동에서 짓는 시에서는 칠언율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시가형식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전당시》에 수록된 시를 살펴보면 전체 칠언율시 5,903수 중에서 중만당시기의 작품은 5,531수로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당시기에 두보의 경우 전체 1,498수 중에 칠언율시는 151수로 10%정도를 차지할 뿐이며, 이백이나 왕유의 경우는 각각 0.8%와 4.2%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만당시기에 들어서면 그 비율이 20%~40%까지 상승하게 된다.³⁰⁾ 특히 중당시기에는 기교와 난해함으로 이름난 奇險派보다 쉽고 일상적인 시를 썼던 通俗派에 있어 칠언율시의 창작비중이 높았다는 것은 칠언율시가 보다 일상적인 시형식이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³¹⁾ 또한 칠언율시는 율시의 整齊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율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押韻, 平仄, 對仗에

29) 淸나라의 焦循은 <易餘籥錄>에서 “당인의 시를 논할 때는 칠언율시와 오언율시를 우선으로 치고, 칠언고시와 칠언절구를 그 다음으로 하니, 시의 경지가 여기에 이르러 다하게 된다(論唐人詩以七律五律爲先, 七古七絕次之, 詩之境至是盡矣)”라고 하였다.

30)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3쪽, 183쪽, 252쪽.

31) 기협파로 알려진 맹교의 경우는 칠언율시가 전혀 없으며 한유의 경우에도 3.4%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속파인 장적, 왕건, 원진, 백거이의 시에서는 칠언율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8%, 15.5%, 13.5%, 21.4%나 된다. 김준연, 위 논문, 183쪽.

있어서 가장 예술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형식이어서, 詩作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십초시》가 칠언율시만을 선정했다는 사실은 이 시선집이 詩作學習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당나라시기에 출판된 당시선집이 대부분 古體詩와 近體詩를 두루 뽑은 것에 반해, 《십초시》에서는 칠언율시만을 선정하였으므로 그 목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시인이나 시가의 선정에서도 그 교육적 목적이 드러난다. 만당시기의 시가 주제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艷情性, 諷諭性, 憂國性의 내용이 중요한 특징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십초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시가는 거의 선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염정시로 유명한 李商隱(812~858)과 韋莊(836~910)은 시인 선정에서 배제되었으며, 역시 艷麗한 시풍을 가지는 두목이나 온정균이 선정은 되었지만 그들의 시 중에서 염려한 시는 배제되고 景物詩, 懷古詩, 贈答詩 등만이 수록되었다. 또한 《십초시》에는 백거이, 장적, 피일휴, 나은 등의 풍유시도 전혀 실려 있지 않다.³²⁾ 《십초시》의 편찬자는 “前輩鉅儒”여서 기본적으로 儒家의 嚴肅性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詩作教育用에 내용적으로 보다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인다. 이상은은 또한 어려운 典故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편찬의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客慮, 懷古, 詠懷, 詠物詩 같은 경우에는 詩材에 대한 세심한 묘사나 개인적 감정에 대한 미묘한 묘사를 長技로 하

32) 이러한 경향은 당시 《십초시》의 편찬자가 참고하였던 여러 시인의 문집의 종류와 관련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문헌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고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현존하는 당시선집과 비교를 통해 《십초시》 선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십초시》의 이러한 선시양상은 오대시기에 편찬된 《재조집》의 경우 위장, 두목, 온정균, 이상은의 시를 197수를 싣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재조집》은 오대 後蜀의 韋穀이 펴낸 唐詩選集인데, 주로 중만당의 작품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는 약 200명의 唐代시인의 시 1,000수가 실려 있다. 이 중 위장 63수, 온정균 61수, 원진 57수, 이상은 40수, 두목 33수가 실려 있다. 이백의 시가 28수 실려 있지만 두보의 시는 실려 있지 않다.

고 있어서 詩語의 사용이나 對仗의 치밀함이 다른 종류의 시에서보다 훨씬 더 뛰어나며, 酬答詩, 寄贈詩, 送別詩 등은 직접적으로 교유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십초시》의 詩作教育用이란 목적에 아주 부합되어 적극적으로 수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夾注十抄詩》의 刊行

《협주십초시》는 고려의 스님인 자산이 《십초시》에 작가의 略傳을 추가하고, 人物, 地理, 事件 등에 대해서 여러 서적의 관련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夾注를 加한 것으로 약 1300년 전후로 간행되었으며, 그 간행목적은 협주자인 자산의 序文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빈도가 잠시 경주의 영묘사에 머물렀는데, 불공을 드리는 여가에 우연히 본조(고려)의 앞선 위대한 유학자가 당나라 현인들의 진집에 의거해 유명한 시를 각 10수씩 모두 300수를 가려서 이름을 《십초시》라고 한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것이 유래가 오래되었고, 시체의 풍격이 모범적이고 단아하여, 후진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貧道暫寓東都靈妙寺, 祝聖餘閑, 偶見本朝前輩鉅儒據唐室群賢全集, 各選名詩十首, 凡三百篇, 名題爲十抄詩. 傳於東海, 其來尙矣, 體格典雅, 有益於後進學者)”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목적은 후진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후진 학자는 詩文을 배워서 관직에 나아가려는 자들을 뜻한다. 詩作을 학습함에 있어서 이전 시기의 모범적인 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협주의 목적은 그 이해과정을 돕기 위해 시에 나타나는 인명이나 지명 혹은 사물명 그리고 전고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각종 서적의 해당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애초 《십초시》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목적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기 교육기관으로는 국립학교인 國學과 사립교육기관인 私學이 있

었다. 국학에서는 수학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사학기관을 이용했는데, 文宗(1047~1083재위) 때에 太師中書令 崔冲이 학생들을 모아 교육을 시켰는데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차고 넘치게 될 정도였으며 양반의 자제로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이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이러한 사립학교는 점차 많아져서 전국에 12개소나 되었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사찰을 얻어서 夏期學習을 조직하였고, 이미 과거에 급제한 선배가 와서 燈燭에 금을 그어 정해진 시간 내에 시 짓기를 시키기도 하였다. 또, 東堂監試가 있는 후에는 국가감에서 모든 사립학교의 유생들을 모아서 50일 동안 학습시킨 다음 해산시켰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사찰에 모여서 30일 동안 학습하고 私試에서 시 15수 이상을 지어야 하며 이것이 教導의 심사에 통과해야 가능했다.³³⁾ 비록 詩作이 정규교과과목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과거시험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詩作을 중시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³⁴⁾ 그들이 여름마다 공부한 것이 寺院이라는 것과 《십초시》를 협주한 사람이 스님이라는 것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武臣亂 이후로 문인들이 그다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은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스님들의 문학적 소양은 대단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십초시》에 협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산도 사찰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시작을 가르쳤을 것이며 《협주십초시》가 그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³⁵⁾

33) 이상의 私學 관련 내용은 《고려사》 권74 선거지2 사학 조목 참조.

34) 당시 과거시험과목은 오언배울인 십운시 위주였기 때문에 칠언율시는 직접적인 교육효과는 없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짓는 시에서 칠언율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며, 칠언율시를 통해 배울을 짓는 기본 율격인 평측, 압운, 대장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울을 배우기에 가장 중요한 시체가 바로 칠언율시이다. 따라서 비록 과거시험과목이 오언배울이지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칠언율시를 바탕으로 詩作을 학습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문학적 경향을 살펴보면 羅末麗初에 만당을 배우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고려 중기 이후 조선 중기까지 蘇軾과 江西詩派를 위주로 한 송시풍이 형성된다.³⁵⁾ 따라서 《십초시》가 편찬될 때만큼 만당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십초시》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교육적 목적에서는 “시체의 풍격이 모범적이고 단아한” 칠언율시가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으며, 칠언율시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만당시기 작품이 교육적 목적에 적합하여 《협주십초시》의 간행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협주십초시》가 간행된 1300년대 전후는 이미 송나라가 멸망하고 몽고족인 원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고 고려까지 屬國으로 만든 시기였다. 고려인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원나라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문학적 자질만큼은 몽고족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당시 고려인의 시문선집의 편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1315년 전후로 金台鉉이 편찬한 《東國文鑑》은 나말려초 문인의 시문을 선정한 것으로 중국의 시문선집인 《文選》과 《唐文粹》에 견주고자 하였고³⁷⁾, 1336년경 崔瀧 역시 최치원부터 고려 중기까지의 시문을 선정하여 《東人之文》을 엮었는데, 그 서문에서 “오히려 일심의 묘에 의지하여 천지사방을 통하게 되면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으니, 그 득의한 작품에 이르러서는 저들에게 많이 양보해야겠는가?(尙賴一心之妙, 通乎天地四方, 無有毫末之差, 至其得意, 而多讓乎彼哉?)”³⁸⁾라고 하여 나말려초의 문학작품이 중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긍심은 《협주십초시》의 서문에서도 그 편린을 발견할 수 있다. 서문에서 選詩를 평가하면

35) 허흥식, 위의 책, 102쪽.

36) 이종목,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서울: 태학사, 2002), 497쪽.

37) 崔瀧는 <金文正公墓誌>에서 “또 손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글을 수집하여 《동국문감》이라고 하였고, 《문선》과 《당문수》에 견주었다(又手集東人之文, 號東國文鑑, 以擬配選粹)”라고 하였다. 최해 저, 최채기 역, 《拙稿千百》(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6), 55쪽.

38) 위의 책, 94쪽.

서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것이 유래가 오래되었고, 시체의 풍격이 모범적이고 단아하다”라고 하여, 당나라 시인의 시 뿐만 아니라 신라인들의 시도 역시 같은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만당시풍에서 송시풍으로의 전반적인 문학기풍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당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신라인을 따로 지목하지 않고 전체적인 평을 함으로써 중국의 “모범적이고 단아한” 시와 동일하게 뛰어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신라인들의 문학적 성취와 그 성취를 이어받은 고려인의 문학적 자긍심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각 작가들에 대한 略傳을 역시 협주의 형식으로 넣으면서 신라문인의 약전에는 《三國遺事》나 《三國史》 등 고려서적을 인용하고 또 신라인임을 확실히 설명한 것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이상과 같이, 《협주십초시》의 간행목적은 詩作教育用과 자국의 문학적 자부심의 표현이라는 《십초시》의 간행목적과 기본적으로는 일치하고 있지만, 교육용이라는 목적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협주를 加한 행위 자체는 그 목적을 보다 대중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朝鮮 初期의 重刊

조선이 개국하는 과정에서 인재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문학방면에서도 고려에서 넘겨받은 인재 이외에는 뛰어난 문인을 거의 배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종 때에는 강력한 右文政策의 일환으로 집현전을 설치하고 수많은 서적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중국 시문집이 광범위하게 간행되었다. 두보, 이백, 한유, 유종원, 위응물, 백거이, 두목, 매요신, 왕안석 등 걸출한 문인들의 시문집이 간행되었으며, 안

39) 최광유의 경우는 전혀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인지, 약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최치원의 경우 고려인이라고 되어있지만 약전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신라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의의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평대군의 주도하에 당송의 대가들(이백, 두보, 위응물, 유종원, 구양수, 왕안석, 소식, 황정견)의 시를 선정한 《八家詩選》이 편찬되었고 중국에서 편찬한 시선집도 간행되었다.⁴⁰⁾

이러한 다양한 간행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1452년에 《협주십초시》가 重刊되는데, 당시의 간행 목적은 이 책을 교정한 權擘의 발문에 인용된 이백상의 언급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이백상 부사가 말하기를 ‘이 시를 뽑은 이도 우리나라의 어진 인물이고, 주를 단 이도 우리나라 승려인데,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이들은 대개 이 책을 통해 진경으로 들어가니, 우리나라의 귀한 보물이다. 하지만 판본이 매우 드물었다. 또 지금 다시 진사과를 설치하여 시부를 시험보이니, 배우는 자들은 진정 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두루 구하다가 겨우 한 권을 얻어서, 중간하려는 뜻이 있어 감사 전성 이승지(李崇之)에게 아뢰니, 공이 흔쾌히 따르면서 목판에 새기도록 명하였다. 그대가 마침 이곳에 왔으니, 진실로 다행이다. 그대가 나를 위해 틀린 곳을 바로잡아 후학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오’라고 하였다(侯之言曰, 是詩抄者東賢也, 注者亦東僧也, 而世之啓蒙者, 率由是入眞, 吾東方之青氈也. 然板本甚鮮. 且今更設進士科, 用詩賦, 則學者固不可不知也. 惜其煙沒, 旁求僅得一本, 竊有重刊之志, 告於監司相國全城李公, 公欣然樂從, 卽命錄梓, 而子行適至, 誠幸也, 將子爲我刊誤, 以惠來學)”

간행목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후학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다. 다시금 진사과가 설치되었고 시부가 시험과목이었기 때문에, 작시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협주십초시》가 이러한 목적에 아주 부합되는 서적이라는 평가이다.⁴¹⁾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를 살펴보면, 세종 17년

40) 이종목, 위의 책, 517~518쪽.

41) 이는 《협주십초시》 장서각본에 있는 李云俊의 발문에서도 확인된다. “부사 양성 이백상은 시부로 선비를 취하는 때에 있어서 학문을 흥성시키려는 뜻을 내심 가지고 있었는데, 《십초시》 한 권을 얻어 목판에 새겨 널리 보급하려 하였다(府使陽城李伯常, 當詩賦取士之時, 竊有興學之志, 得十抄詩一本, 欲鋟梓廣施)”

(1435)에 시학을 진작시키기 위해 진사시를 부활하고 십운시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다.⁴²⁾ 하지만 십운시의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시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세종 26년(1444)에 진사시가 철폐되었다가, 문종 2년(1452)에 진사시가 다시 부활되었다. 하지만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십운시는 실시하지 않고, 대신 古賦 한 편과 고시(10운 이상) 및 율시(6운 이상) 중 한 편을 선택하여 모두 두 편으로 시험을 보게 하였다. 또한 시관의 결정에 따라서 오언과 칠언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 조정의 정책은 시학을 융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과거제도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로만 시험보지 않고 부를 추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시 배경 하에서 시학교육의 목적이 보다 부각되었을 것이며, 《협주십초시》와 같은 시선집이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⁴³⁾ 《협주십초시》는 작시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칠언율시를 위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가장 적합했을 것이다. 권람의 발문에 나오는 이백상의 언급에 “世之啓蒙者”나 “學者”, 그리고 권람이 말하는 “初學”⁴⁴⁾이라는 단어는 모두 학문의 단계가 낮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어서, 《협주십초시》는 비교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한 초급단계의 詩學教育書籍으로 여겨졌다. 더구나 아직 당시에는 《瀛奎律髓》나 《聯珠詩格》과 같은 서적이 널리 간행되기 전이

42) 《조선왕조실록》의 세종 17년 6월 26일 조목에 集賢殿 大提學 李孟暉이 아뢰기를 “시학은 청소년 시절에 공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전조(고려)의 진사과를 회복하여 부 한 문제와 배율십운시 한 문제를 내어 각각 50인을 뽑아야 합니다(詩學當及妙年, 宜復前朝進士科, 出賦一題, 排律十韻詩一題, 各取五十人)”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되어있다.

43) 당시 과거수험생들의 시작능력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시험에서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나 수험생들의 시권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보인다. 또 십운시의 경우 20구를 완성해야 하지만,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다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으며, 공식적으로도 18구정도만 완성해도 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에 대한 교육의 강조는 어느 때보다 더 절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4) 권람의 발문에 “초학자에게 적절한 바가 있다(有切於初學)”라고 되어 있다.

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적의 필요성은 더욱 컸을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이 《십초시》와 《협주십초시》의 간행목적과 일맥상통하였고, 만당 시기의 칠언율시라는 독특한 선시기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당시의 활발한 중국문학서적의 간행열기에 힘입어 더욱더 《협주십초시》와 같은 중국시선집의 간행이 유리했을 것이다.

한편, 《협주십초시》의 권람의 발문에 나오는 이백상의 언급에서 “이 시를 뽑은 이도 우리나라의 어진 인물이고, 주를 단 이도 우리나라 승려이다”라는 언급도 그 의의를 되새겨 봐야 한다. 이러한 언급 자체가 중국시선집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의해 편찬되고 주석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당시에 간행되던 중국시선집은 모두 중국사람의 안목으로 선정한 것이었는데, 이에 반해 《(협주)십초시》는 우리나라 사람의 안목으로 중국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학식으로 주석을 단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처지를 보다 잘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이들은 대개 이 책을 통해 진경으로 들어가니, 우리나라의 귀한 보물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시선집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평가를 하였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시를 선정하고 주석을 다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후학들 역시 이러한 책을 반드시 공부해서 진정한 시의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崔淑精(1433~1480)이 서거정의 《동인시화》에 쓴 <後序>에서 “우리 동방의 시학은 삼국에서 시작되었고 고려에서 성했으며, 성조(조선)에 들어와서 극에 이르렀다(吾東方詩學, 如於三國, 盛於高麗, 極於聖朝)”⁴⁵⁾고 하여, 당시 조선 초의 시학이 가장 왕성했으며, 그 뿌리는 신라와 고려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문인들이 시학에 대한 자부심과 그 근원에 대한 주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협주십초시》의 중간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초기 《협주십초시》의 중간목적은 다분히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45) 최숙정 저, 김일영 편역, 《(국역) 逍遙齋集》(서울: 선문출판사, 1995), 566쪽.

위한 초급수준의 시작학습용의 목적이 컸으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옛 선조들의 문학적 성취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大衆性의 喪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주)십초시》에 대해 編纂者나 重刊者는 모두 문학적 자부심의 과시와 詩作教育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인정하여 이 책을 널리 보급하였지만, 실제로 문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유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고찰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 초중기 이후로 급격하게 《(협주)십초시》의 대중성은 떨어졌는데, 아래에서 그 이유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선 1452년에 《협주십초시》가 중간될 때, 저본이 된 것이 권사복이 진사 공부를 할 때 1337년 안동부에서 간행된 것을 필사한 책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산이 《협주십초시》를 편찬한 것이 1337년 이전이라고 하면, 안동부 판은 중판이 되며, 권사복은 그 중판을 구하지 못해 필사를 했다는 것이므로, 권사복이 생존해 있을 당시까지는 대중적으로 많이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권람의 발문에서 “그러나 판본이 매우 드물다. (...) 지금으로부터 겨우 106년 전인데, 세상에 이미 소장한 자가 없으니 진실로 애석하다(然板本甚鮮. (...) 距今纔百有六年, 世已無藏者, 誠可惜也)”라고 하였고, 또한 후대의 기록에도 《大東韻府群玉》에 《협주십초시》의 서지사항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이 《海東文獻總錄》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1336년에 쓰인 최해의 《동인지문》 서문이나 《동문선》 서문에 《(협주)십초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이후의 시선집에 참고된 흔적이나 기타 서적에 언급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 초기 이후로는 그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후대의 시선집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詩選에 참고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⁴⁶⁾ 그

46) 김건곤, 위의 논문, 7쪽. 《십초시》를 참고했으리라 추측되는 시선집은 두 종

이유는 《십초시》가 가지는 특수한 편찬목적에서 기인한 선시기준, 만당 시에서 송시 및 성당시로의 문인취향의 이동, 다양한 당시선집의 활발한 간행, 그리고 《협주십초시》의 내용적 오류 등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협주)십초시》가 가지는 시작교육용이라는 목적성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십초시》에 수록된 시인들을 살펴보면 그 활동시기가 모두 중만당과 오대시기이다. 유우석과 백거이는 唐 德宗과 憲宗의 貞元, 元和 연간에 활동한 시인들이며, 가도, 장적, 장효표 등은 백거이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면서 詩名을 떨치던 시인들이다. 두목, 허훈, 온정균, 옹도, 장호, 조하 등은 중국문학사에서 만당의 시초로 잡는 大中 연간부터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인이며, 두순학, 이균옥, 이원, 나은, 나업, 이산보 등은 오대 초기까지 활동하던 시인이다. 《십초시》가 편찬될 당시만 해도, 중국인들조차 唐詩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한 시학이 그다지 완정하거나 성숙하지 못하였으며, 아직 성당에 주목하는 관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唐代 전체에 걸친 시선집보다는 편찬자 중심의 시가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는 중만당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⁴⁷⁾ 따라서 《십초시》의 편찬자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으며⁴⁸⁾, 중만당과 오대 시기에 국한된 선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원나라 楊士弘이

류가 있다. 《三韓詩龜鑑》에 최치원, 박인범, 최승우의 시가 각 5수씩 실려 있다. 최치원의 것은 《십초시》와 중복되지 않지만, 박인범과 최승우의 것은 《십초시》에 수록된 것과 같은 것이어서, 《삼한시귀감》의 편찬과정에서 《십초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문선》에 박인범, 최승우, 최광유의 10수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십초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문선》은 국왕의 명에 의해서 많은 시를 수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에 《십초시》의 대중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47) 당대에 출판된 시선집들은 대부분 중만당에 편중되어 있으며, 심지어 왕안석의 《당백가시선》까지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였다. 元代에 들어서야 唐代詩歌를 세부적으로 시기구분하면서 성당을 중점에 두게 된다.

48) 김종직의 《靑丘風雅》序文에 “신라 말과 고려 초기에는 오로지 만당을 답습했다(羅季及麗初, 專襲晚唐)”라고 하였다.

1344년에 편찬한 《唐音》에 이르러서야 변화가 생긴다. 이때부터 성당의 이백과 두보를 중시하면서, 성당의 시를 많이 수록한 시선집이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문인들은 성당의 시를 배우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전에 중만당을 위주로 한 시선집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고려 중후반과 조선 초기의 문인들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당의 시를 배우고 송대의 시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만당의 시만을 수록한 《(협주)십초시》가 예전과 같은 관심을 받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그리고 《(협주)십초시》가 철저하게 중만당 및 오대 시기의 시만을 고집한 나머지, 다른 시선집에는 그다지 실리지 않은 시인들의 작품이 상당수 실려 있다. 장효표, 이원, 옹도, 마대, 위섬, 피일휴, 방간, 이웅, 오인벽, 이균옥 등의 시는 《우현집》이나 《재조집》에 거의 실리지 않거나 기껏 한두 수의 시만 실려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宋代인 987년에 나온 《문원영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⁴⁹⁾ 이러한 군소작가들이 《십초시》에 수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존하는 자료가 부족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몇몇 시인들의 상황을 통해 짐작은 할 수 있다. 장효표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시문집이 전해지지 않으며 《전당시》에도 시1권(67수)만이 전하고 있지만, 980년경 일본에서 편찬된 《千載佳句》에 그의 시가 34수가 실려 백거이, 원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 또한 조당 역시 그의 문집은 산일되고 없으며 《전당시》에 그의 시가 2권 전할 뿐이지만 《재조집》과 《문원영화》에 칠언율시만 각각 21수와 32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시 중 칠언절구 100수로 이루어진 <小游仙詩>와 칠언율시 50수로 이루어진 <大游仙詩>는 널리 알려졌었다.⁵⁰⁾ 따라서 이들의 문집이 전

49) 《문원영화》에 실린 칠언율시만 살펴보면, 장효표 8수, 이원 4수, 옹도 10수, 장호 4수, 마대 7수, 위섬 0수, 피일휴 18수, 이웅 0수, 오인벽 0수, 한중 6수, 진도옥 2수, 나은 3수, 이산보 3수이다.

50) 《십초시》에 있는 조당의 시가 모두 <대유선시>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석중, <《십초시》 소재 중국 일시 연구>(《중국문학》 53집, 2007), 67~69쪽.

해지던 고려 초기까지는 대중적 인지도를 가졌을 것이지만 송대 이후로 그들의 문집이 散失되면서 문인들 사이에서 직접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며, 《(협주)십초시》 이외에서는 이미 잊힌 무명작가로 전락했을 것이다.

또한 여타 시선집에 수록된 시인들이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어나 위장과 같은 작가가 수록되지 않은 것은 교육적인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백거이와 병칭되는 元纘(779~831)을 빼놓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원진은 백거이와 시풍이 비슷하여 元白으로 병칭되며 元和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원진의 경우 백거이보다는 선정되는 시의 양은 부족하지만 당대와 송대에 발행된 거의 모든 시선집에 수록되어 있다. 백거이는 신라 때부터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었으며⁵¹⁾ 원진 역시 고려시기의 기록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어서⁵²⁾, 두 사람 모두 일찍부터 명성이 났을 것인데, 《십초시》에는 백거이만 수록되어 있고, 원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시선집으로

51) 《신당서·백거이전》에 따르면 “(백거이는) 특히 시에 가장 능숙하였다. (...) 작품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자신을 늦추어 시속의 기호에 맞게 어울렸다. 수 천편에 이르자 당시의 선비들이 다투어 전하게 되었다. 신라의 장사꾼들은 그 작품을 그 나라의 재상에게 팔았는데 하찮은 것도 일금을 주고 바꾸었다. 많이 위조된 것을 보면, 재상이 문득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最工詩. (...) 及其多, 更下偶俗好, 至數千篇, 常侍士人爭傳. 鷄林行賈售其國相, 率篇易一金, 甚僞者, 相輒能辯之)”라고 되어있다. 당시 신라에서 백거이의 인기는 위작이 나돌 정도였으며, 또 그에 대한 감식안 역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백거이가 신라시기 알려졌으며, 원진과 백거이가 항상 병칭되는 현상으로 보았을 때, 원진 역시 신라시기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고려시기의 기록으로는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으며, 1100년대 중반쯤 지어졌으리라 추정되는 林惟正의 《百家衣集》에도 그의 시구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명나라의 왕세정이 편찬한 《藝苑卮言》 권 7에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원화 연간에 신라의 상인들이 원진과 백거이의 시를 사면서 말하기를 ‘신라의 재상이 백금을 주고 그들의 시 한 편을 사는데, 위조된 것은 단번에 분간해낸다(元和中雞林賈人鬻元白詩云 東國宰相以百金易一篇, 僞者輒能辨)’”라고 하였다. 위의 《신당서》기록과는 약간의 출입을 보이는데, 《신당서》의 기록이 원진이 쓴 <白氏長慶集序>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왕세정의 내용이 더 정확할 가능성도 있다.

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당시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는 艷情詩도 수록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만당시선집과는 그 모습이 많이 달라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협주)십초시》의 독특한 선시기준에 따른 편향적인 작가 및 시가 선정은 점차 시가선집으로서 모범적 가치를 잃어갔으며, 조선 초기 이후 《영규율수》와 《연주시격》을 필두로 한 보다 광범위하고 정선된 시선집이 출판됨에 따라서 그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협주)십초시》 내용상의 오류와 선시안목을 지적할 수 있다. 권람의 발문이나 이운준의 발문에 나오듯이 주석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많았으며⁵³⁾, 실제로 권람은 405자를 바로 잡기도 하였다.⁵⁴⁾ 이러한 오류가 學翫書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⁵⁵⁾ 또한 시 선정의 안목에 대해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조집》이나 《문원영화》와 같은 비슷한 시기의 시선집이나 조선 중기까지 널리 읽히던 당시선집들과 비교하였을 때 수록된 작품이 겹치는 것이 적다는 것에서⁵⁶⁾ 《십초시》의 선시양상이 여타 시선집과 다르며,

53) 권람의 발문에서는 “한두 판목을 살펴보니 주가 틀린 곳이 많다(取看一兩板, 注多魚魯)”라고 하였고, 이운준의 발문에서도 “글이 자못 어지러이 섞여있다(字頗舛錯)”라고 하였다.

54) 이러한 오류는 권사목의 전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권람의 교정작업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의 발문에서 “하지만 학문이 정밀하고 넓지 못하고, 곁에 서적이 없어서 우선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바로 잡았는데, 모두 405자이다. 비록 잘못되었다고 의심나는 것이 있어도 감히 어떤 글자라고 확실히 적지 못하고 남겨두어 널리 아는 이를 기다린다.(然學未精博, 旁無書籍, 故以所記憶者, 改正之. 凡四百單五字, 雖有所疑誤, 不敢的記爲某字, 仍留以候博聞者.)”라고 하였다.

55) 현재 필자가 시 원문과 주석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오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56) 《재조집》에 수록된 칠언율시 중 《십초시》에 수록된 시인의 칠언율시는 모두 122수이지만 그중 17수만이 겹친다. 특히 《재조집》에 온정균 17수, 조당 21수, 나은 15수가 수록되어 있지만 《십초시》와 겹치는 작품은 나은 1수 뿐이다. 《문원영화》에는 이러한 작가들의 칠언율시가 612수 실려 있지만 그중 52수만이 《십초시》와 겹친다. 이러한 비교작업은 《당음》 등 조선 초중

이는 적어도 조선 초기 이후 대중적 시가취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협주)명현십초시》는 그 교육적 효과를 더 이상 거두지 못하여 문인들 사이에서 그 가치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⁵⁷⁾

III. 結 論

본고에서는 각 시기별 《(협주)십초시》의 간행목적에 고려 및 조선의 학문적 자부심을 고양하려는 목적과 후학의 시작교육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이 서적의 독특한 선시양상과 해당 시기별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두 가지 측면이 유전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 초기에 송나라보다 먼저 사회문물을 정비하였으며, 재당유학생들의 귀국을 통해 상당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나말려초의 문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元代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우문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시문선집이 간행되는 가운데 고려인에 의해 선정되고 협주된 《협주십초시》에 높은 가치를 두기도 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칠언율시만을 선정함으로써 과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작교육용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려인과 조선인의 문학적 성취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시기준으로 인해 이후 대중적인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

기까지 널리 읽히던 당시선집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겹치는 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더 요구된다.

57) 《(협주)십초시》의 또 다른 간행 목적이었던 문학적 자긍심의 발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조선 문인들로서는 이 책에서 자신들의 문학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가치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만당위주의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시가의 선택, 상대적으로 많은 군소작가의 작품들, 중만당 위주에서 성당 및 송대로 대중적 관심의 이동, 새로운 시선집의 출현, 내용 자체의 오류 등의 이유로 《(협주)십초시》는 그다지 많이 읽히지 않게 되었고, 유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근래 《(협주)십초시》는 일시나 일문의 존재로 인해 문헌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일정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이 서적은 또한 당시 고려인들의 선시관, 시선집의 출판목적 등을 통해 중국시문학 나아가 전반적인 시문학에 대한 고려 및 조선 문인들의 문학비평적 관점과 학습 및 향유 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며, 당시 한중 문학교류사적인 방면의 의의도 자못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접근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았으며, 이후 수록된 시의 본문과 주석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夾注名賢十抄詩》 장서각본 영인본(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고려] 子山 협주, 查屏球 정리, 《협주명현십초시》(상해: 상해고적출판사), 2005.
 호승희, <《十抄詩》一考 -《全唐詩》미수록작품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Vol. 15, 한국서지학회, 1995.
 호승희, <《십초시》의 자료적 이해와 편찬체제>, 《韓國漢文學研究》 Vol. 19, 1996.
 김태희, <당에서의 신라인 활동>, 《녹우연구논집》, 37권, 2000.
 김중렬, <나당 문인의 교류시 연구>, 《동양고전연구》 6권 1호, 1996.
 허흥식, 《고려의 동아시아 시문학·백가의집》(서울: 민족사), 2009.

- 김건곤, <고려시대의 시문선집>, 《정신문화연구》 20권 3호, 1997.
-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서울: 태학사), 2002.
- [唐] 元結 等 選, 《唐人選唐詩 十種》(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강석중, <《십초시》의 중국시 선시 양상 일고>, 《韓國漢詩研究》 Vol. 11, 한국한시학회, 2003.
- 강석중, <《십초시》 소재 중국 일시 연구>, 《중국문학》 53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7.
- 芳村弘道, 심경호 역, <조선본 《협주명현십초시》의 기초적 연구>, 《한자한문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5.
- 查屏球, <新補《全唐詩》 102首 - 高麗本《十抄詩》中所存唐人佚詩考>, 《唐代文學研究》 第十輯(중국당대 문학학회 제11회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2002年.
- 金程宇, <韓國本《十抄詩》中的唐人佚詩輯考>, 《沈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2年 05期.
- 牛林杰, <韓國文獻中的《全唐詩》逸詩考>, 《文史哲》, 1998年 05期.
- 章之, <新補《全唐詩》102首>指瑕>, 《古籍整理研究學刊》 2005年 11月 第6期.
-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서울: 일조각), 2005.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 김준연, 《당대 칠언율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陳尙君, <唐人編選詩歌總集敍錄>, 《中國詩學》 第二輯, 南京大學出版社, 1992.
- 최해 저, 최채기 역, 《拙稿千百》(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6.
- 최숙정 저, 김일영 편역, 《(국역) 逍遙齋集》(서울: 선문출판사), 1995.

<中文提要>

《十抄詩》是一本收集中晚唐到五代時期中國詩人和在唐新羅詩人共三十位的作品詩選集，它收錄了每位詩人的十首七言律詩共三百首，因為其中有在其它書籍裏從來沒發現的佚詩一百餘首，在文學史上的價值非常高。

《十抄詩》是高麗初期十世紀後半由一位高麗儒生編纂的。那時候在文化和文學方面高麗人的水平不比宋代文人差，所以為了顯示高麗人的文學自負心，他用自己的眼光來選定中國詩，甚至把新羅人的詩歌放在跟中國詩人同等的地位上。再說當時科舉制度施行以後，高麗文人對詩歌創作的關心度也很高，《十抄詩》滿足對模範詩歌集的要求。

在高麗中後期1300年前後，為了加強《十抄詩》的教育的效果，僧人子山加注編《夾注十抄詩》。考慮到那時候高麗人的其它詩文選集編纂情況，我們可以知道這加注活動也是高麗人表現自己對文學才良的自負心。

朝鮮初期王朝的政策是隆盛文學，所以復活科舉制度，強調詩歌創作能力。一般文人也關注到《夾注十抄詩》的教育價值，十五世紀中葉密陽府使重刊此書。他們通過讚揚本國人選定並加注中國詩歌的活動，表現自己有對本國詩學的自負心。

但是，由於這本書過度考慮教育目的，內容以晚唐詩歌為主而且群小作家的詩歌較多，加上從中晚唐詩歌到盛唐和宋代詩歌文人趣向的移動、新編唐詩選集的普及等原因，人們對《夾注十抄詩》的關心越來越少，此書的流傳過程也越來越歷經艱難。

주제어 : 十抄詩, 夾注十抄詩, 唐詩選, 詩作教育, 唐詩選集, 高麗詩文集